

# “세방산업 발암물질 대체재 도입 시민 검증위 서둘러야”

### 저감시설로 배출량 줄여도 발암물질은 계속 배출 불가피

### 세방산업 “저감시설 갖춰 9월 공장 재가동” 논란 클 듯

6년 연속 전국에서 1급 발암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세방산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발암물질 대체재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방산업은 현재 투자·설비 중인 1급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저감 설비만으로도 충분히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감 설비 이후 예상되는 발암물질 배출 농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된 35종 중 절반이 넘는 19종이 여전히 법적 허용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발암물질 대체재 도입 위한 검증위원회 구성해야”=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은 17일 “발암물질 저감시설을 만들어 배출량과 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시민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담담할 수 없다”며 “TCE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찾을 수 있도록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감시설로 배출량이 줄더라도 결국은 산단 직원과 인근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TCE보다 안전성이 높은 대체재를 찾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세방산업 하도급업체 관계자, 인근 산단 직원과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역학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해병이 단기간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TCE의 특성상 대기 중에서 독소가 사라지는 반감기가 다른 물질에 비해 길다는 이유에서다.

세방산업은 현재까지 TCE 대체재는 없다는 입장이다.

세방산업은 지난 13일 오후 5시개부터 이날 현재까지 조업을 중단하고 비산 배출 컨설팅 업체의 시설 점검을 받았다. 광주시장, 시민, TF 등과 협의해 공장 재가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방산업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저감시설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9월부터는 TCE 배출량이 2014년 대비 40% 정도 감소하고, 내년부터는 60%까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까지 검토결과 TCE 대체재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TCE 배출 농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예상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배출량이 줄어들면 TCE 농도도 줄어든 것이라는 게 세방산업의 생각이다.

◇19종 대기유해물질 여전히 허용기준치 없이 방치=우리나라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3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TCE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십 종에 달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허용기준치가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중 허용기준이 마련된 물질은 TCE를 포함한 16종, 절반이 넘는 19종은 여전히 배출허용기준이 없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오염물질 중에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폴리염화비페닐, 이화화메틸, 에틸렌옥사이드 등 19종은 유해물질이지만 허용기준이 없어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풍년 기원 ‘용전들 노래’ 17일 광주시 북구 용전마을 입구에서 열린 제18회 용전들노래 정기공연 ‘유두절 한마당’에서 (사)용전들노래 보존회 회원들이 용전들노래를 재현하고 있다. /최원배기자 choi@kwangju.co.kr

## 답 없는 문제 출제...광주 고교서 기말고사 수학 재시험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수학 문제가 잘못 출제돼 재시험을 치렀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A공립고는 지난 8일 치러진 1학년 수학 기말시험 문제에서 오류가 발견돼 재시험을 치렀다.

유가 발견돼 재시험을 치렀다.

학생들은 정답이 없는 해당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 서울형 평가 4문항(30점)을 거의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수학 평균이 33점에

그치는 등 전체 응시생(288명) 중 절반 이상이 10~20점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에따라 지난 13일 오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수학 과목의 경우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 지난 15일 치렀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이익을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우기자 dok2000@

## “수당도 통상임금...전남대병원 67억 지급하라”

### 광주지법, 노조 승소 판결

전남대병원이 노조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 노조원들에게 67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마은혁)는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빛고을전남대병원·전남대치과병원 등 4개 병원 노조원 1091명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근무·기술업무·의료업무·선택복지비 등 20가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67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조 측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년동안 병원 측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병원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북리후생규정에 근거한 수당은 근로 대가로 임금성이 인정되고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근수당 등의 경우도 근로 대가라는 사

실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휴일근로시간 중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중첩 지급돼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초 소송 규모는 80억여원이었으나 노조 측이 소장을 변경해 최종적으로 67억여원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노조 측이 추가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노사 간의 법적 다툼 결과에 따라 전남대병원 측은 막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전남대병원은 간호조무사 110여명의 불법 파견에 따른 임금 소송에서도 패소해 9억여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광주에서는 공기업을 비롯해 통상 임금 소송이 이어져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컨테이너박스에 살던 7식구에게 갑작스럽게 날아든 퇴거 통보**  
배전조각기 작동되는 정미소 옆의 컨테이너 박스. 이곳이 바로 사랑이네 집입니다. 배전조각기 위해 허한 미세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며 호흡기질환을 달고 살던 사랑이네 가족, 생활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엔 곰팡이와 싸우고 겨울엔 추위와 사투를 벌이던 집이지만, 그래도 7남매의 웃음과 행복이 피어났던 집이었습니다.



**사랑이네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엄마, 아빠의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 그리고 남 거친 수천만원의 빚, 빚을 갚으려,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 만산의 몸으로 사랑이 엄마는 아빠와 함께 밭에 나갑니다. 게다가 선천성 백내장을 가진 사랑이의 3도 화상을 입은 막내 3살 마음이의 치료까지 막막한 현실입니다.



**외부에 임시로 판매를 뜻대어 틈새 공간을 마련한 사랑이네 집**  
우리 열일 가족은 살기 위해, 외삼촌네 집 마당에 임시 판매로 5평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와 다를 바 없는 판매 집은 집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콘크리트 바닥과 배추 튀어나온 빨간 벽돌에 3살 마음이가 언제든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동생이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원자님,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사랑이네 주거신속비 및 생계비로 사용되며, 참여해주신 후원자님께 입주식에 초대합니다. 본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 사랑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랑이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정신 없는 엄마를 도와줍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칠타를 깨고, 식사시간이 되면 숟가락, 젓가락을 척척 놓습니다. 사랑이의 별명은 ‘신사원장’. 6살이지만 마음은 훌쩍 커버린 아이입니다.



후원금 및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찍어주세요  
후원계좌 : 어린이재단/농협/301-00816148-11

**오늘의 날씨**

해출 05:31    달출 18:12  
해진 19:46    달진 03:52

**‘따가운 햇볕’**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졌습니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21/31	보성	구름많음	20/29
목포	구름많음	22/29	순천	구름많음	21/31
여수	구름많음	23/28	영광	구름많음	21/30
나주	구름많음	20/31	진도	구름많음	21/29
완도	구름많음	21/29	전주	구름많음	21/30
구례	구름많음	20/31	군산	구름많음	21/28
강진	구름많음	21/29	남원	구름많음	21/30
해남	구름많음	21/30	흑산도	구름많음	20/26
장성	구름많음	19/3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남부	면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서부	면바다(동)	동~남동	1.0~1.5	동~남동	1.0~1.5
	면바다(서)	동~남동	1.0~1.5	동~남동	1.0~1.5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1:04	06:36
	12:54	18:24
여수	07:48	02:06
	20:37	13:49

◇주간 날씨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3/32	23/30	23/32	23/30	24/28	24/29	24/30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매우높음
- 미세먼지 좋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문의. Tel. 061-274-0041 / 061-921-4397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68년 동안 국내·외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생존·보호·발달·권리옹호)를 수행 해 온 국내 최대의 아동복지전문기관입니다.